

GRACE 선교소식

2026년 9월 GMI-GKC 선교사 현황: 58개국 301명 (자체파송 79%)

종교개혁자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자

GMI 총재 한기홍 목사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잘 도착하여, 프랑크푸르트 은혜교회(담임 문성은 목사)에서 준비한 국제총회에 참석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는 첫날 새로 입당한 프랑크푸르트 은혜교회에서 개회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참석한 총회원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성찬식을 가지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종교개혁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총회의 주제는 “개혁의 발자취에서 선교의 사명으로”(요 8:32)입니다.

종교개혁 탐방 일정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체코 프라하까지 왕복하는 여정으로, 종교개혁 역사에서 중요한 세 지역인 헤른후트, 체코 프라하, 바르트부르크 성을 방문하며 그 역사적 의미를 깨닫고 은혜받는 시간입니다.

먼저 방문한 헤른후트(Herrnhut)는 독일 작센주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1722년 종교적 박해를 피해 보헤미아와 모라비아 지역에서 온 개신교 피난민들이 진첸도르프 백작의 영지에 정착하면서 신앙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1727년 8월 13일, 베르텔스도르프 교회에서 성찬예배를 드리던 공동체가 강렬한 영적 각성과 연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 각성 이후 헤른후트 공동체는 24시간 연속기도를 시작했고, 이 기도운동은 오랜 세월 지속되면서 세계선교를 향한 놀라운 불씨가 되었습니다. **기도가 선교로 이어진 것입니다.**

특히 진첸도르프와 모라비안 공동체의 흔적을 돌아보면서 모라비안 묘지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묘지를 ‘하나님의 밭(Gottesacker)’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이 이름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밭에 묻혔다가 다시 생명으로 일어나듯이, 죽은 자도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기도했고, 복음을 위해 헌신했고,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뿌린 믿음과 선교의 씨앗은 수백 년이 지난 오늘까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체코 프라하에서는 종교개혁자 얀 후스(Jan Hus)의 흔적을 돌아보게 됩니다. 얀 후스는 마틴 루터보다 약 100년 앞서 보헤미아, 오늘날의 체코에서 교회의 개혁을 외쳤던 인물입니다. 그는 결국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고 1415년 화형을 당하여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 개혁의 불길이 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스의 가르침은 이후 후스파 운동에 영향을 주었고, 훗날 종교개혁과 모라비안 전통으로 이어지는 역사에도 중요한 영향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바르트부르크 성(Wartburg Castle)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곳은 마틴 루터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 보호를 받으며 머물면서 신약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곳입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정신은 ‘오직 성경’입니다.

한 사람이 작은 방에서 번역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 민족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 교회의 역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얀 후스의 순교가 헛되지 않았고, 루터의 작은



한기홍 목사님 사역일정

- 프랑크푸르트 은혜교회 입당 감사 및 임직식 예배: 9/27
- 동유럽 목회자 컨퍼런스: 9/28-9/30
- KIMNET 선교 대회: 10/5-10/7
- 세상의 빛 동광교회 50주년 기념 부흥집회: 10/22-10/25
- 은혜동산 #18: 10/26-10/29

목사님의 사역 일정을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방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으며, 헤른후트에서 시작된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믿음과 기도와 헌신을 사용하셔서 시대를 변화시키고 열방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저 자신도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역과 사명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리라 다시 다짐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국제총회의 폐회예배와 목사안수식을 인도하고, 주일에는 프랑크푸르트 은혜교회 입당감사예배와 임직식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는 폴란드로 이동하여 동유럽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종교개혁자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깨어 있으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주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개혁의 발자취가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다시 선교의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

함OO / 김OO 선교사

8주간의 S섬 하계집중사역을 풍성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7개 선교팀들과 함께 지난 8주 동안 함께 S섬 산속을 다니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전하였고, 또한 많은 S섬 영혼들에게 십자가 구원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제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에게 주님께서 물 뿌려주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어 복음의 열매들이 맺도록 함께 기도 바랍니다.

감사가 자라나는 교회 S선교팀 14명 S섬 사역 (8/8-8/14)

“감사가 자라나는 교회” 설립 7주년 첫번째 해외선교를 S섬으로 결정하시고, S선교팀 14명이 도착하시어, 함께 S섬 산속마을들을 다니며 스킷드라마, 워십, 어린이사역, 기도, 간증, 세족식, 세례식, 예배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였습니다. 교회가 아직 없는 마을에서는 마을마당에 모여 예배드리고, 또한 H마을과 P마을에서는 귀한 영혼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였고, 특별히 아직 암투병 중인 아들 지홍집사 부부가 함께 하며 귀한 간증을 나누어 많은 영혼들의 심령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일 뿐이며, 이제 뿌려진 복음들이 자라나도록 기도 바랍니다.

S섬 교회 건축들과 우물 프로젝트

S섬에 51, 52, 53, 54, 55번째 교회들이 각각 건축 중에 있으며, 15, 16, 17, 18, 19, 20번째 우물 프로젝트가 각 마을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교회건축들과 여러 우물프로젝트들의 진행 가운데 각종 자재공급 및 인력배급들이 원활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 교회건축이 절실히 필요한 3개 마을에도 귀

한 교회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들이 공급되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A 은혜교회 TD 탐방팀 3명과 S섬 사역 (9/7-9/11)

LA 은혜교회 탐방팀 3분과 함께 S섬 현지 사역자들을 위한 TD 프로그램을 내년에 하고자 S섬 신학교와 몇몇마을 탐방 및 예배를 하고자 합니다. 모든 탐방진행일정과 각 마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보고, 함께 상의하며 내년 TD 프로그램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바랍니다.

M지역 봉제직훈센터

“혜송원”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M지역 봉제직훈센터에서 현재 제1기 20명이 3개월간 제봉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봉제에 대해 전혀 모르던 분들이 이제 각자의 옷을 만들기 시작하였고 9월 18일 드디어 수료식 및 의상 발표회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금번 의상발표회는 M지역 모든 주민들이 볼 수 있는 M지역 H마을 야외에서 할 예정입니다. 모든 교육일정과 야외 의상발표회가 주님이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바랍니다.

캄보디아

김동규 / 이승향 선교사

세계를 품은 선교사 훈련원

성경 중고등학교, 성경 초등학교: AGMC 신학교(바이블칼리지)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학교시스템을 선교사훈련원으로 바꾸도록 새 비전을 주셔서 학생들에게 성경교육을 통하여 철저한 말씀 무장과 각종 사역훈련을 통하여 선교사가 되도록 비전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은 저희 학교에서 훈련받은 학생들이 부름심 받은 외국 나라에 가서 동일한 공동체를 만들고, 그곳에 동일한 선교사 훈련을 시켜 또 다른 나라로 파송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이블 초중고의 시작

세상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일반교육으로는 절대로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성경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훈련과 공동체 삶을 통하여 하나



님나라의 일군을 길러내는 것을 새로운 비전으로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중 지방교회 목회자들이 저희 학교 교육비전에 감동을 받고 학생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회자 자녀들 편부모 자녀들이 혼가정 자녀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생 10명 중고등학생 8명, 그리고 신학부 2명이 추가로 입학하였습니다. 초중고 한 명 양육하는데 재정이 필요합니다. 중보기도자 여러분께서 감동되시는대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AI 시대인 것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사역자가 될 학생들이 컴퓨터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AI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컴퓨터 지원이 필요합니다. 컴

퓨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9월 사역

• 그레이스 인카운터 사역: 9/9-9/11

캄보디아 사역자와 교회 리더들을 위한 그레이스 인카운터 사역을 진행합니다. 미국 LA은혜한인교회 인카운터 사역자팀 12분과 캄보디아 GMI소속 선교사 4가정이 함께 저희 AGMC선교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이번에 훈련에 참석하는 캄보디아 목회자 사역자는 70명입니다.

• 김성태 목사 성경세미나: 9/17-9/18

고린도후서 강해 세미나

• 제4차 킹덤 빌더 청소년 영성훈련: 9/8-10/1

해마다 청소년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기름부으심과 비전을 받아 세계선교사들로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대문선교회 나용목사님팀 5명과, 그리고 유덕진대표가 함께 합니다. 청소년들 200명이 저희 AGMC센터에서 3박4일 합숙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강력한 후원이 필요합니다. 1~3기 킹덤빌더 사역역사가 유튜브채널 agm news cambodia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보스니아

신운영 선교사

벤자민

전에 말씀드렸던 학생 벤자민을 기억하나요?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하던 학생! 한동안 안 보여서 그만 두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잠시 크로아티아에 놀러갔다고 하더군요. 감사하게도 벤자민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서 못 나온 이유를 말해 주더군요. 그리고 물어보지 않은 자신의 가정이야기를 말해 주었습니다. 역시 부모님은 이슬람 신자이며 자신도 광적인 이슬람 신자는 아니지만 이슬람의 교리를 어느 정도 수긍하며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부모님이 헤어지고 나서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 저러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오분 정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화가 마무리될 때에 전화번호를 주고 받았습니다. 시간이 되면 커피를 마시든지 아니면 산책을 하자고 제가 먼저 제의했습니다. 산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의 입장에서 언어 공부도 하고 인생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저의 경험도 이야기할 수 있

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계속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책

너무 덥다 보니 바깥에 나가지 않고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서 배교한 사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작가는 주인공이 왜 배교를 했는지에 대한 감정의 흐름을 독자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 그려 놓았지만 배교자는 배교자일 뿐이죠. 글 잘 쓰는 작가가 가롯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 넘겼는가에 대한 서사를 논리에 맞게 감정적으로 잘 풀어 낼 수 있지만 가롯 유다는 가롯 유다일 뿐이죠! 때로 글을 잘 써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될 수도 있음을 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감정에 지나치게 호소하게 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멀어질 수 있음을 실제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혼을 빼놓는 책을 볼 때는 늘 조심합니다. 또 발칸 4국 특히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에 대한 책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살고 있는 선교사로서 일종의 의무감이 있

기도 하고 이들의 역사와 문화를 알면 아무래도 제가 무지해서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깰 수 있기에, 언젠가 이들 네 나라와 연관성 있는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책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

힘들어도 꾸준히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때로는 꾸역꾸역 공부하기도 합니다. 이번 달과 지난 달을 비교해 보면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들의 문화는 이제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언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문화를 번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상가 임대

피아노를 가지고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상가 임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재정입니다. 공간을 얻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리라 봅니다. 일단 비자 갱신을 이번 연도에 다시 하고서 상가 임대를 본격적으로 알아 보려 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이병철 / 박미란 선교사

킬레오 공동체 소식

• **어린이 공부방과 미니도서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무사히 완공되어 은혜 가운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과 후 찾아와 책을 읽고 현지 스태프들과 아이들의 부족한 공부를 채워가며, 하루가 다르게 예쁜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완공 전 공사 중에 다쳤던 저의 왼발도 감사하게 잘 아물어 견고합니다. 다만 상처 아래쪽 감각이 아직 무딘 것은 주님의 시간에 차차 회복되리라 믿으며 기다립니다.

• **이웃 킬레오 초등학교를 돕는 손길:** 지난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한국 예광팀이 다녀갔습니다. 함께 킬레오 초등학교 교실 바닥의 콘크리트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8명이 한 줄로

서서 흙과 시멘트가 담긴 바킷을 손에서 손으로 옮겼습니다. 한국에서는 해보지 않았을 고된 건축 일을 일일이 손으로 이어가며,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 얼굴에 시멘트가 묻어도 서로를 바라보며 해맑게 웃던 그 고마운 순간들이 참으로 귀하고 즐거웠습니다.

킬레오 그레이스교회 소식

한국 예광팀과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참 기쁜 잔치를 벌였습니다. 사흘 동안 열린 어린이 초청 잔치에는 6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함께 성경을 배우고, 영화를 보고, 신나게 운동회를 즐겼습니다. 기쁨으로 섬기는 교인들과 온 마음으로 사역한 예광팀 모두가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천국의 행복을 깊이 맛본 보석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킬레오 가정사역 소식

깨어지고, 찢기고, 닦는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가정에는 어김없이 새 생명의 축복이 찾아옵니다. 지난 8월 대심방 기



간, 새 생명이 태어난 두 가정을 찾아 축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곳 탄자니아에서는 구하기 힘든 귀한 선물들(배냇저고리, 모자, 내복, 우추박, 손수건, 타월, 모빌, 기저귀가방)을 정성껏 챙겨 나누었습니다.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축하금도 함께 전달하며, 아기를 품에 안은 엄마도, 나눔을 실천한 성도들도 다 함께 기쁨의 눈물과 웃음을 나누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행복한 선교사로 살아가는 이곳 킬레오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감사함으로 보낸 복된 8월이었습니다.

탄자니아

정현우 / 정슬기 선교사

삶으로 이어지는 제자훈련

지난 7월 17일에는 선교센터 DTS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DTS 훈련을 받고 있던 기간과 겹쳐 이번 훈련생들의 과정을 직접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한 과정을 잘 마치고 졸업의 자리에 선 모습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길을 오가다 이전에 DTS를 졸업한 이들을 우연히 만나기도 했습니다. 짧은 만남이어서 그들의 삶을 자세히 알 수는 없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훈련의 시간에 배우고 받은 것들이 이후의 삶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이번 졸업생들 역시 배운 말씀과 받은 은혜를 일상의 삶으로 잘 이어가며,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맡겨진 자리에서 믿음을 살아내는 제자로 계속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제자훈련을 통해 현지의 다음 세대와 사역자들이 꾸준히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가라투뉴비전스쿨 졸업과 중등학교 준비

8월 27일에는 가라투뉴비전스쿨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감사한 날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약 10년의 시간을 가라투뉴비전스쿨에서 보낸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떠나 다른 학교로 진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학교와 함께 자란 아이들을 떠나보내며, 이곳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새로운 환경에서도 아이들의 삶을 든든히 세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지금 탄자니아에서는 교육과정 개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7년이었던 초등교육 과정이 6년으로 전환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두 학년의 학생들이 동시에 중등과정으로 진학하게 되는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중등교육 기관과 교육환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부에서도 뉴비전스쿨이 중등학교 설립을 서둘러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고, 필요한 과정에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뉴비전스쿨은 2028년 개교를 목표로 현재 중등학

교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건축 과정도 순조롭게 이어지고, 필요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씩 잘 준비되어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음이의 새 학년

이음이도 방학을 마치고 한 학년 진급하여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학년 담임선생님께서 올해도 이음이의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이음이에게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선생님과 다시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이 저희에게도 큰 감사입니다.

이곳에서 자라며 이음이도 학교와 일상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법을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대신해 주고 싶은 순간도 있지만, 이음이가 자신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배우며 조금씩 단단하게 자라가는 과정을 잘 지켜보고 함께해 주고 싶습니다. 새 학년에도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 가운데 즐겁게 배우고,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알아가며 몸과 마음, 그리고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언어훈련

저희의 스와힐리어 공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지인과 함께 공부하며 여전히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조금씩 알아듣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순간들이 늘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언어를 배우는 목적이 단순히 말을 잘하는 데 있지 않고, 이곳의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더 잘 듣는 데 있음을 기억하며 꾸준히 배우려 합니다.

M국

곽OO / 이OO 선교사

복음을 만나지 못한 미전도 지역 I호수

I호수 수상마을에는 불교의 환경 속에서 200여 마을 17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분류되었던 인레호수에서 외국인인 정착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관계를 통해 처음으로 구축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전략적 전초기지인 M국 I호수 최초의 기독교 시설 소정수상선교센터를 통해 우상의



환경 속에 있던 주민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복음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방주

2024년 홍수와 2025년 지진피해로 선교센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기공사와 생



활용수 물 파이프 기본 공사가 마무리 되고 약 100평의 공간이 조성되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방주”에서는 다시 예배가 시작되고 두 마을 그룹리더들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200여명의 어린이들이 모여 공부를 하게 될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스

신동덕 / 신미희 선교사

코이노니아 미니스트리 웹사이트 제작

웹사이트를 만들기 앞서 그동안 어떤 꿈을 꾸기 시작했는지 추억을 더듬기 보았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이별했는지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직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제는 그 만남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와 제 아내의 꿈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아내와 제가 함께 나누는 꿈 이야기는 “기쁜 소식”(막 1:1)으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어쩌면 언젠가, 헤어진 사람들과도 꿈속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리아 여성 J

얼마 전 잠시 독일로 떠났다 오겠다던 J양. 그녀는 아테네에서 40분 정도 떨어진 난민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시리아에서 태어난 그녀는 쿠르드족입니다. 쿠르드족은 독립 국가가 없어 터키, 이라크, 이란, 시리아의 국경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J는 선천적으로 신장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 신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정기적인 투석이 필요합니다. 시리아에 살고 있던 그녀는 내전으로 인해 그녀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집을 팔고 J와 그녀의 언니, 그리고 두 여동생, 이렇게 네 딸을 먼저 터키를 거쳐 그리스로 보냈습니다.

저희는 2025년 3월 아테네에서 J양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해 7월부터 J와 그녀의 자매들, 그리고 사촌들을 포함한 여섯 명의 젊은 여성들과 함께 제 아내는 매주 한 번씩 난민캠프 인근에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날, J와 그녀의 자매들은 깊은 슬픔에 잠겨 울었습니다. 부모님과 두 명의 어린 동생,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이 터키를 거쳐 그리스로 불법 입국하려다 체포되어 추방당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가족은 다시 한번 시도했고, 무사히 아테네의 난민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이 가족에는 딸만 일곱 명이고 아들은 없습니다. 둘째 언니가 독일에 사는 쿠르드족 남성과 약혼하고 그를 만나러 떠나려 할 때, 온 가족이 함께 가기로 결정하고 2주 전에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단 그리스에서 합법적으로 난민증을 발급 받으면 모두가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가 다시 난민 신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정 교회를 위한 새로운 꿈

오늘날 아테네 은혜 교회는 북유럽으로 떠났다가 다시 아테네로 돌아오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의 난민 캠프에서 2년간 살다가 추방 당합니다.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이 북유럽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 달 후에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럽 정치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는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에 가장 효과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정교회 목자를 위한 학기

새로운 꿈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성경대학(Bible College Europe)을 통해 이주인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가정교회를 개척하며, 그 가정교회들이 굳건히 세워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목회자 훈련”을 통해 참가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이 복음을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다음 학기부터 바이블 칼리지 유럽에서는 가정교회를 세우고 난민을 돌볼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특별 “목회자 훈련 학기”를 운영합니다. 이 학기는 9월 12일에 시작하여 12월 12일에 종료됩니다.

세례와 새 생명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에서 정결하게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는 한국과 같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변에서 세례식을 거행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난민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을 갖게 된 후에도 세례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의 개종이 공동체 내에서 알려지게 되면 그들로부터의 차별, 심각한 결과, 심지어 신체적 폭력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저는 이란 협력 목사님과 함께 해변에서 한 이란 청년 A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저는 이 청년이 교회 안에서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가정교회의 목자가 되어 다른 난민들을 섬기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이 꿈이 현실이 되려면 난민 성도들이 섬길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뒤에서 지원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난민 목자가 되어 다른 난민이 주인들을 돌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난민 사역이 더 널리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난민 사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난민 가정 교회가 생존하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몇몇의 후원자들이 개별 난민 가정 교회와 협력하여 우리와 함께 사역에 참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파라과이

김돈수 / 김미정 선교사

“헤네라시온 데 페” 2026년 겨울성경학교

올해 겨울 성경학교는 “믿음의 세대(Generacion de Fe)”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순종으로 믿음에 반 응했던 여호수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평생 기도로 살았던 사무엘, 복음으로 변화되어 열방을 향해 달려 갔던 바울의 삶을 통해, 다음 시대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과 순종, 믿음의 가치를 심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4차에 걸쳐 교사 강습회를 열어 70개 교회, 500여 명의 교사들을 말씀과 훈련으로 세웠습니다. 주제곡과 새로운 찬양과 율동 영상(5곡), 어린이 및 교사 공과 교재, 설교 PPT, 공작 활동 자료 등 풍성한 콘텐츠를 각 교회에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겨울 성경학교는 “믿음의 세대(Generacion de Fe)”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순종으로 믿음에 반 응했던 여호수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평생 기도로 살았던 사무엘, 복음으로 변화되어 열방을 향해 달려 갔던 바울의 삶을 통해, 다음 시대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과 순종, 믿음의 가치를 심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4차에 걸쳐 교사 강습회를 열어 70개 교회, 500여 명의 교사들을 말씀과 훈련으로 세웠습니다. 주제곡과 새로운 찬양과 율동 영상(5곡), 어린이 및 교사 공과 교재, 설교 PPT, 공작 활동 자료 등 풍성한 콘텐츠를 각 교회에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교사 강습회 이후 3주간 각 지역교회 교사들은 뜨겁게 기도하며 전도와 환경 구성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70개 교회에서 약 4,000명의 어린이들이 등록하여 구원의 기쁨과 믿음의 결단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귀한 헌금으로 동역해 주신 이희란 권사님(미국)과 최희강 후원자님의 가족(한국)에게 감사사를 드

립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긴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인카운터 사역

함께 동역하는 6개 교회가 각 4주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복음 전도 프로그램인 ‘인카운터(Encounter)’를 진행했습니다. 총 135명이 등록하여 4주의 과정을 성실히 완주한 88명의 새가족들과 함께 주말 수양회를 열었습니다. 특별히 미국 LA 은혜한인교회 17그룹 목사님과 단기 선교팀이 방문하여 눈물과 헌신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와 참된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리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회개, 결단의 기도가 뜨겁게 터져 나왔습니다. 수양회 후 각 교회별 축복 모임에서는 굳 어있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삶이 변화된 수많은 감격의 간증들이 쏟아져 나와 주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살롬큐티학교 강의(말씀 묵상 사역)

살롬큐티를 통해 말씀 묵상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곳의 현지 교회로부터 큐티학교 강의를 요청 받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별된 시간으로 4주간 큐티 학교를 인도했습니다. 건강한 평신도 리더십의 핵심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훈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망의 오아시스 교회와 큰은혜교회가 큐티 훈련을 발판 삼아 말씀 위에 굳건히 뿌리내리는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Santificada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회복과 부흥의 현장

지난해 11월부터 임시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 Santificada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과 공동체의 역동이 눈에 띄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낙심하여 떠났던 가정들이 돌아오고, 인카운터 사역을 통해 전도된 영혼들 중 약 10명의 결신자가 세워져 오는 12월 침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9월 셋째 주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립 30주년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최근 운영위원회에서 나눈 교회를 향한 성도들의 진심 어린 사랑과 헌신, 성숙한 모습을 보며 목회자로서 깊은 위로와 감사를 느꼈습니다. 교회가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로 굳건해지도록 함께 손 모아 주십시오.

GMI 파라과이 온라인 신학교

현재 GMI 파라과이 신학교에는 5기와 6기 총

40명의 신학생들이 복음의 일꾼으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성막론 2(안영식 목사님 강의)’ 과목을 통해 성막 구조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성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를 깊이 깨닫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8월에는 ‘중보기도’ 과목은 김돈수 선교사가 가르쳤습니다. 각자 섬기는 교회 안에 중보기도팀을 세워 기도로 깨어 있는 영적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을 뜨겁게 결단했습니다. 매월 수업 첫날은 현장에서 모여 강의를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9월 ‘요한복음’, 10월 ‘모세오경’, 11월 ‘룻기’ 강의가 연이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성경을 깊이 있게 통찰하며 영적으로 더욱 견고하고 풍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FMB 아메리카 지부 전략회의

8월 말, 아메리카 4개국에서 사역하는 FMB(침례교 해외 선교회) 11명의 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메리카 선교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길을 함께 구했습니다. 아메리카 현재 선교의 도전은 무엇인지, 여성 사역자들의 자기 계발과 성장, 문화 속에 복음을 뿌리내리는 전달 방식, 각자의 선교 사역 뿐만 아니라 대륙 전체를 품는 선교 방향을 나누며, 다른 땅에서도 쉬지 않고 일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했습니다. 열 방을 향해 다시 눈이 열리고 더 큰 기도의 제물을 품게 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강사로 섬겨 주신 유관재 목사님(성광교회 선교 목사)과 손해도 목사님(코너스톤교회)을 통해 선포된 말씀으로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었으며, 두 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심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가족이야기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6) 선교지에서 달려온 30년, 잠시 멈추어 쉴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9월에 한국에 들어와 10월 20일부터 11월 12일까지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안의 WMTC에서 시니어 선교훈련(10/19-11/13)을 받게 되었습니다. 쉼을 주셔서 감사하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돌아볼 수 있어 더욱 감사합니다. 지나온 길은 오직 주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바른 길을 걸을 때도, 넘어지고 실패한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제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도 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쉼 속에서 새 힘을 얻어 남은 길도 끝까지 신실하게 달려가겠습니다.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탄자니아 이병철 / 박미란 선교사

1. 사역 차량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중고차의 엔진은 더 이상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안타까운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역을 위한 차량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 아내의 건강과 저의 성숙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아내에게는 육신과 영혼의 강건함을 주시고, 저에게는 아내를 더 깊이 배려하고 절제할 수 있는 성숙함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3. 첫째 딸 하은이(33세)의 회복을 기도해주세요. 하은이가 힘든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영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어 일어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4. 둘째 딸 하민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실한 청년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탄자니아 정현우 / 정슬기 선교사

1. 뉴비전스쿨을 졸업한 학생들이 배운 믿음과 가르침을 품고 삶의 다음 걸음을 잘 걸어가며, 2028년 개교를 목표로 진행 중인 중·고등학교 건축의 모든 과정과 필요가 잘 채워지도록
2. 현지인과 계속하고 있는 언어훈련에 꾸준함을 주시고, 스와힐리어를 통해 현지인들의 마음과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며 소통해 가도록
3. 새 학년을 시작한 이음이가 학교생활과 관계 가운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파라과이 김돈수 / 김미정 선교사

1. 파라과이를 위하여: 정치적 부패와 혼란 속에서도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빛을 발하도록
2. 새가족 정착을 위하여: 인카운터를 통해 6개 교회의 회심한 100여 명의 형제자매들이 공동체 안에 온전히 정착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뿌리내리도록
3. 지난 7월부터 모금을 시작한 자동차 교체 헌금이 채워져 안식월 후에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4. 한국 방문(안식월과 시니어 선교훈련): 1996년 2월에 단기선교사로 파송되어 올해까지 30년의 사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한국 방문 기간을 통해 영적, 충전 재충전을 위해, 우리 부부가 건강 검진을 받게 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5. 장남 김용욱이 베트남에서 인턴쉽 과정에 있는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차남 김용준이 한국에서 4학년 1학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진로를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이국 남OO 선교사

1. 신입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며 모든 신학생들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2. 오는 12월은 어드미션기간입니다. 신입생으로 준비된 사명감이 있는 남학생 10명, 여학생 5명이 입학하도록
3.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께 열납되어 정결하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4. 어머니가 척추유합수술 잘 받고 서서히 회복하고 계시는데 온전하여져서 성가대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보스니아 신운영 선교사

1. 언어 성장
2. 상가임대
3. 네트워킹(보스니아헤르체고나,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4. 감옥사역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파푸아뉴기니 남영미 / 김운용 선교사

2026년 학술대회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한국에 방문이 어려운 선교사들을 위해 온, 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진행되었으며, 총 37명이 참석했습니다. 발제자는 모두 8명으로, 온라인으로 2명, 현장에서 6명이 발표했습니다. 발표 주제는 다중언어교육, 문법, 번역, 사전학, 사회언어학 등 다양한 분야로 이루어졌습니다. 각 부족어 성경 번역과 언어사역에 도움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어학 용어사전 번역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번역과 교정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실제 언어학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을 꼼꼼히 살피는 과정 속에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을 느낍니다. 원본과 번역 과정의 오류들을 고쳐서 사전의 완성도를 높이고, 내년에는 누락된 주요 용어들을 잘 보완하여 더욱 충실하게 사전이 완성되길 기도합니다. 향후 성경번역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성경번역 선교사들이 사역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러 부족의 언어로 하나님의 생명 되신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1. 파푸아뉴기니 각 부족의 모국어 성경이 온전히 번역되고 보급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부족에게 전해지게 하소서.
2. 부족 간 갈등과 분쟁이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연재해에서 보호해 주소서.
3. 김운용 선교사가 언어학 용어 사전을 번역할 때 전문 용어의 번역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혜와 능력과 체력을 주시고, 성경번역 사역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게 하소서.
4. 남영미 선교사의 난소암이 재발되지 않게 지켜 주시고, 자가면역질환과 저체온증을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5. 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선교부 광고

1.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 비취택 TD #23 (10/2-10/14)
S/L: 설성훈 목사
렉터: 박병일 장로
문의: 박병일 장로 (213-999-1737)
- 네팔 QT 세미나 및 헌당예배 (10/18-10/26)
SL: 신영자 목사
리더: 이미선 권사
문의: 조범준 집사 (714-222-8628)
- 베네수엘라 AFA #12 (10/19-10/27)
SL: 김도현 선교사
렉터: 안영숙 전도사
문의: 562-665-0607
- 인도 전도폭발 임상훈련 및 개척선교 (10/20-10/24)
SL: 이민 목사
리더: 신사무엘 집사
문의: 음진형 집사 (714-345-8772)

- 은혜동산 18기 (10/23-11/2)
SL: 한기홍 목사
렉터: 윤만 장로
문의: 이정호 집사 (213-500-7939)
T/M: 9/8부터(매주 화), 7PM, VC116

- 인도개척선교 모집 (10/25-11/4)
문의: 전재우 집사 (562-644-2128)
T/M: 9/1부터(매주 화), 7PM, 웨딩채플

- 태국 라오스 TD 3기 (11/21-11/28)
문의: 전재우 집사 (562-644-2128)
S/L: 송중호 목사
렉터: 양한철 집사
문의: 안규범 집사 (714-328-4820)

2.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 - 11:15AM
문의: 의료선교국

3.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 및 주빌리 구국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WPC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4. 선교부 디보션 일정

매월 2, 4째주 주일 9:00AM

5.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
@GMIMMISSION
WWW.FACEBOOK.COM/
GMIMMISSION

